



한화 폰세(왼쪽)와 삼성 디아즈. 연합뉴스

# 폰세·디아즈 자존심 건 투타대결

## 한화·삼성 플레이오프 화제

17일 막을 올리는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는 역시 코드 폰세(한화)와 트윈 디아즈(삼성)의 대결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폰세는 올해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등 투수 부문 4관왕에 올랐고, 디아즈는 홈런과 타점, 장타율 부문을 석권하며 타격 3관왕에 등극했다.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폰세와 디아즈의 투타 맞대결이 이번 PO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폰세와 디아즈 외에도 흥미로운 매치업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이 또 올해 한화와 삼성의 PO 무대다.

먼저 한화 손아섭과 삼성 강민호 가운데 누가 먼저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숙원을 풀 것인지가 흥미롭다.

나란히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둘은 1985년생 강민호가 3살 많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은 둘 다 없다.

한국시리즈도 2024시즌에 강민호만 삼성에서 경험했다. 올해 3월 KBO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는 '강민호, 전준우(롯데), 손아섭 중 누가 가장 먼저 우승할 것 같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당시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강민호와 전준우는 서로를 지목하며 '손아섭은

폰세 투수 4관왕... 승리 수호신 디아즈 타격 3관왕 불방망이

우승 경험 없는 손아섭·강민호 누가 먼저 숙원 풀지도 관심사

해 신인 강속구 투수들의 불펜 대결도 볼 만하다. 한화 정우주와 삼성 배찬승은 나란히 2006년생 신예들로 정우주가 오른손, 배찬승은 왼손으로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려댄다.

정규시즌에서는 정우주가 3승 3홀드,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했고 배찬승은 2승 3패, 19홀드, 평균자책점 3.91을 남겼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정우주가 전체 2순위, 배찬승은 3순위로 프로로 입문했다.

자유계약선수(FA) 이적생들의 활약도 흥미 요소다.

2025시즌을 앞두고 한화 임상백은 4년 최대 78억 원에 kt wiz를 떠나 한화로 옮겼고, 삼성 최원태는 4년 최대 70억 원 조건에 LG 트윈스에서 삼성으로 이적했다.

두 선수 모두 정규시즌 활약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임상백이 2승 7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8을 기록했고, 최원태는 8승 7패, 평균자책점 4.92의 성적을 냈다.

최원태는 올해 준PO 1차전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60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면서 제 몫을 했다.

이번 PO에서 임상백은 불펜, 최원태는 선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이재현, 김영웅 등 2003년생 신예들이 내야 핵심 역할을 한다면 한화에서는 김서현, 문현빈 등 2004년생들이 투타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좀 힘들 것'이라는 뉘앙스로 답했다. 그때만 해도 손아섭이 전력상 약체로 평가된 NC 다이노스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아섭이 올해 트레이드 마감 시

한이던 7월 말 상위권 팀인 한화로 전격 트레이드되면서 단숨에 가장 먼저 우승의 한을 풀기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베테랑들의 자존심 싸움에 이어서는 울

## 홍명보호 '값진 평가전'

참패 망신 브라질전 큰 고훈 파라과이 꺾고 자신감 회복 셋별들 득점 가세도 긍정적

“패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달 A매치 2연전을 끝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대 성과는 '정신적 어려움 극복'으로 꼽힌다.

홍명보호는 10일 '삼바축구' 브라질을 상대로 이렇다 할 공세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5골이나 헌납하는 망신을 당했지만, 14일 '남미 복병' 파라과이와 대결에서는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2-0 완승을 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브라질과 랭킹 37위 파라과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국가들이다.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홍명보호 감독은 본격적으로 월드컵 본선 준비를 시작했다.

7월 동아시아안업을 통해 K리그 테스트를 펼친 홍 감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극전사 '육석 가리기'에 나섰다.

홍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 '대륙별 상위 팀'을 조건으로 평가전 상대를 잡으려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축구협회는 9월에는 북중미 대륙의 미국과 멕시코, 10월에는 남미 대륙의 브라질, 파라과이와 대결을 추진했다.

11월에는 애초 아프리카 대륙의 2개 팀(북아프리카·서아프리카)과 맞붙으려 했지만, 섭외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남미 예선에서 7위를 차지해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볼리비아로 대체했고, 나머지 상대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가나가 유력한 상황이다.

홍명보호는 지난달 미국 원정으로 치러진 A매치 2연전에서 미국을 2-0으로 꺾고, 멕시코와 2-2로 비기는 좋은 성과를 내고 10월 A매치 2연전을

'삼바축구' 브라질과 첫 대결에서 홍명보호는 수비진이 '탈탈' 털리며 5실

점이나 내주는 완패를 당했다.

월드컵을 대비한 플랜 B로 테스트하는 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뒷문을 열어줬고 조직력도 무너져 공격수들은 득점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최악의 경기력에 참패를 맞은 대표팀은 두 번째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베스트 11을 8명이나 바꾸는 변화를 선택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한국전에 앞서 일본과 2-2로 비겼던 파라과이를 상대로 한국은 전반 15분 엄지성(스완지시티)의 선제 결승골에 이어 후반 30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을 받은 오현규(헝크)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맞았다.

득점에 관여한 선수 전부가 2000년 대생이라는 점도 세대교체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파라과이전 승리가 중요했던 것은 '패배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있다.

홍 감독은 파라과이전을 끝낸 뒤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 2차전을 대비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남미의 강호들과 치른 평가전은 홍명보호의 스리백 실험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브라질전 완패 뒤 홍 감독은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서다"라며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점을 찾으려고 평가전을 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대표팀은 9월 A매치 2연전에서 스리백 전술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강호' 브라질에는 허점이 드러나며 5실점의 악몽을 겪었다.

브라질전 패배는 FIFA 랭킹 23위를 지켜야 하는 홍명보호에도 악영향을 준 터라 파라과이전은 전술 실험뿐만 아니라 승리도 절실했다.

12월6일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은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본선 진출국 48개국을 4개 포트(12개국씩)로 나눠 실시된다.



옷이 오르지 않아 드셔본 분은 꼭 다시찾게되는



# 콜라겐이 풍부한 옷이랑 닭발 진액골드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옷의 폴리보노이드로 제대로된 몸보신하세요!

50% 특별할인



옷이랑 대표이사 김중규

토종 참옷 전문브랜드 옷이랑 제품중 옷이랑 닭발진액골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발과 토종 참옷이 만나서 새로운 보양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닭발에는 콜라겐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및 몸에 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닭발을 많이 섭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구하기는 쉽지만 조리하기도 까다롭지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닭발을 진액으로 제조하여 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 닭발속의 영양분에 토종 참옷을 더하여 여름철 지

친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몸보신 제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콜라겐 때문에 닭발을 많이 드시는데요. 맵고 짜서 많이 드시길 못합니다. 이럴 땐 옷이랑 닭발진액 골드를 드시면 됩니다. 옷이 오르지 않는 참옷진액과 닭발 속의 콜라겐을 섭취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옷이랑 닭발진액골드는 무독화 특허기술로 닭발과 토종참옷, 오갈피나무, 건조쇠뿔, 구기자 나무열매, 생강, 삼주 뿌리 줄기, 감초 등을 넣어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옷의 폴리보노이드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루시울이 없어 옷이 타지 않는 토종참옷 우루시울은 옷을 오래게 하는 성분입니다. 옷이랑 참옷에는 우루시울이 단 한방울도 없어 옷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품질을 위한 위생적인 최첨단 설비 옷이랑 제품들은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에 위치한 제천 바이오밸리의 생산공장에서 제조합니다. 재료의 입고부터 선별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설비에서 생산됩니다. 완벽한 청정시설로 일체의 위해요소의 혼입 막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토종 참옷과 닭발의 2배 농축진액

- 1박스(80mlX30포) +56,000원 - 78,000원
- 2박스(60포) 312,000원 - 138,000원
- 3박스(90포) 468,000원 - 198,000원

행사기간 : 2025년 9월 30일 까지

주문전화 / 02-458-0821

농협 301-0253-2226-11 예금주 (주)옷이랑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능

